

# 내달 GA에 1200% 룰 적용... 보험 신계약 '유지율' 과제

보험판매 1차연도 수수료 제한 신계약 유지율 낮으면 CSM 하락 계약 건수·월납초회보험료 넘어 13회·25회차 유지율 등 함께 봐야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보험계약마진(CSM) 성장전략이 물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17(IFRS17) 도입 이후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해 커졌던 판매수수료 경쟁이 규제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험사들은 많이 파는 계약만큼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계약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 GA도 1200%룰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한다. 1200%룰은 보험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사 유지율 경쟁 이미지.

는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 등 설계사 유치와 신계약 확대를 위해 지급되던 비용도 한도 산정에 포함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는 보험 가입 권유 과정에서 제휴 보험사 목록과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순위 등을 설명해야 한다. 고수수료 상품을 앞세워 단기기에

신계약을 끌어오는 방식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에서는 이미 부담스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0% 증가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계약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다. 소비자에게는 해약환급금

손실과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사에는 유지율 하락과 민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 ◆ 승부처는 유지율과 판매품질

다만 이번 규제가 보험사의 신계약 경쟁 자체를 멈추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IFRS17 체제에서 보험사는 계속해서 신계약 CSM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보유계약 CSM은 시간이 지나며 상각되고, 당국의 제도 변화나 할인율, 계약적 가정 변경, 고객 해지와 승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유계약 CSM은 제도 변화와 가정 변경, 해지승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계약 CSM과 구분해 봐야 한다"며 "기존 CSM을 지키는 것만큼 새 계약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계약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단기 신계약은 당장 신계약 CSM을 키울 수 있지만, 유지율이 낮거나 승환 가능성이 높은 계약은 시간이 지나며 보유계약 CSM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보험사들이 신계약 건수와 월납초회

보험료뿐 아니라 13회차·25회차 유지율, 승환계약률, 불완전판매율, 민원율을 함께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생보사는 보장성보험 중심의 CSM 확대 전략을 이어가야 하지만, 고수수료 상품 중심의 단기 판매 경쟁은 부담이 커졌다. 손보사 역시 장기보험 신계약이 CSM 확보의 핵심 축이지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판매 품질이 흔들리면 향후 손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7월부터 시작되는 GA 규제는 보험사의 신계약 경쟁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CSM을 많이 쌓는 경쟁에서 오래 유지될 CSM을 선별하는 경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GA 실적은 많이 가져오는 것만으로 성장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계약 CSM의 규모뿐 아니라 유지율과 판매 품질까지 함께 관리하는 회사가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은행, 3%대 예금금리로 수신경쟁 나선다

증시 활황·청년미래적금 등 변수 케이뱅크, 1년만기 정기예금 3.41% 수협은행, 적금 3.65% '최고금리'

은행권이 최근 예금금리를 올리며 고객 자금 붙잡기에 나서고 있다. 증시 활황으로 예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강해진 데다, 이달 출시 예정인 청년 미래적금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수신 경쟁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수신 유치를 위해 예금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케이뱅크는 최근 대표 상품인 '코드K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를 연 3.41%로 올렸다. 지난달 1일과 20일에 이어 세 번째 금리 조정으로, 은행권 최고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도 정기예금 금리를 3.40%로 높였고, 토스뱅크 역시 예금금리를 0.3%포인트(p) 인상했다.

시중은행도 경쟁에 동참했다. 신한은행은 '윽리한 정기예금' 금리를 2.85%에서 2.90%로 올렸고,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도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각각 최대 0.10%p 높였다.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에 나선 이유는

### <금리 높은 예·적금 상품>

/4일 기준·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예금 상품명	세전이자율
케이뱅크	코드K정기예금	연 3.41%
전북은행	JB다이렉트예금통장	연 3.40%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연 3.40%
한국스탠다드차타드	e-그린세이브예금	연 3.35%

금융회사	적금 상품명	세전이자율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 Zero! 적금	연 3.65%
전북은행	JB다이렉트 적금	연 3.50%
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	연 3.50%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자유적금	연 3.45%

증시 활황으로 예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132조599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 121조2452억원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며 10조원 이상 늘었다. 증시 대기자금이 다시 유입되면서 예금 자금의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청년 미래적금을 출시할 예정인 점도 은행권의 수신 경쟁을 자극하고 있다.

청년 미래적금은 기본금리 5%에 취급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상품으로, 은행권에서는 기존 예·적금 자금의 일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서는 인터넷은행이 여전히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기준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으로 연 3.41%를 제공했다.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 예금통장'과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이 각각 연 3.40%로 뒤를 이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일 인천 중구 소재 사프트테크닉스케이 정비고를 방문해 사프트에비에이션케이 백승석 대표(오른쪽 세번째)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신한은행

## 정상혁 신한은행장, 항공정비 기업 방문

생산적 금융 지원방안 논의

신한은행은 정상혁 행장이 지난 2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항공 정비 전문기업 사프트테크닉스케이를 방문해 항공기 지상 조업 및 정비 현장을 둘러보고, 생산적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사프트테크닉스케이에는 항공 종합 서비스 기업 사프트에비에이션케이의 계열사로, 항공기 정비와 관련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사프트에비에이션케이에는 1964년 설립 이후 국내 주요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 조업, 항공 정비, 화물 터미널 운영, 항공권 발권 대행 등 항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온 항공 종합 서비스 기업이다. 특히 외항사 지상 조업 분야의 오랜 업력과 현장 노

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역량을 구축해 왔으며,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방문은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현장을 직접 살피고, 기업이 금융 수요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정상혁 은행장은 사프트에비에이션케이 백승석 대표와 함께 사프트테크닉스케이 제1·2정비고를 방문해 항공기 지상 조업과 항공 정비(MRO) 현장을 살펴봤다.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항공 산업 회복과 수요 확대에 따른 시설 운영 현황, 전문 인력 확보, 투자 계획 등 기업의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나유리 기자

## 한은, 외환보유액 전월비 8.8억 달러 감소

5월 말 4269억9000만 달러 보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기인"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8억 8000만달러 감소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가 외환보유액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69억9000만달러로 전월 말 4278억8000만달러보다 8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감소 배경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스왑은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달러를 공급하고 원화를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현물환 시장 달러 매입 수요를 완화해 환율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3806억8000만

달러로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전월보다 33억9000만달러 줄었다. 예치금은 213억 5000만달러로 25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은 157억8000만달러로 전월보다 3000만달러 감소했다.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IMF포지션은 44억달러로 6000만 달러 줄었다.

5월 중 주요 통화 흐름은 엇갈렸다. 미 달러화 지수는 99.02로 전월 말보다 0.1% 올랐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각각 0.2%, 0.3% 절하됐다. 반면 엔화와 호주달러화는 달러 대비 각각 0.7%, 0.6% 절상됐다.

/김주형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69주 연속 상승

매매 0.07%, 전세 0.11% 올라

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은 상승폭이 더 커졌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지난 1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0.07%, 전세가격지수는 0.1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0.25% 상승했다. 작년 2월 첫째주 이후 69주 연속 상승세다. 부동산원은 "시장 참여

자의 관심심리로 매수 문의가 다소 한산한 지역과 신축·대단지·역세권 소재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리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강북에서는 동대문구는 답십리·회계동 중 소형 규모 위주로 0.37%, 성동구가 옥수행당동 위주로 0.35%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강서구는 가양·화곡동 역세권 위주 0.31%, 영등포구가 대림·여의도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 0.31% 올랐다. /안상미 기자 smahn1@